



주 제:	“겸손의 덕”	“연중 제 22 주일 (다해)”	2007년 9월 2일
복음 묵상:	루카 14,1.7-1	집회 3,17-18.20.28-29	히브 12,18-19.22-24 ㄱ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겸손에 대한 말이 나왔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겸손의 덕을 지키며 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교만에서 나오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에는 진실성이 없고 그 모습 또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나 혼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나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것이 참으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늘 낮은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군중 김태완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합동 연습 일정 시간**

- 9월 1일 토요일; 4:00
- 9월 8일 토요일; 4:00
- 9월 15일 토요일 (음악회 전날)
 - 6:00-7:30 Vivaldi gloria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 7:30 – 8:00 Break
 - 8:00-9:30 연합 성가대 와 Orchestra 같이 연습
- 9월 16일 주일 (음악회 당일)
 - Dress Rehearsal 3:30 pm to 5:30 pm
 - Dinner 5:30 pm
 - concert 7pm**
- 9월 22일 토요일 6:30 – 9:30pm 연합 성가대와 Orchestra 같이 연습
- 9월 23일 주일 (본당의 날)
 -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 9:30 am 집합
 - 10:15 am Orchestra Prelude 시작
 - 10:30 am Vivaldi Gloria 로 미사 시작

2. 가족 동정

- **윤 안도 요셉 형제님 아버님 수술차** 8/21 급히 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수술이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원만하게 마쳐 기쁘게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지난 2 주일 동안 서울로 출장 중에 있다가 8월 말에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3. 기도 요청

1.30 주년 기념 음악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앞으로 2 주)
2. 윤 안도 요셉님의 아버님 수술 결과가 좋도록 모든 의사들의 손길에까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 [루가 14,1.7-14]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 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 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당신은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분 명상



♥ 순교자 성월에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작은 등불 하나 밝히고
믿음으로 걸으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 걷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며 묵묵히 걸으셨던
사랑의 그 길을 저희들도 걸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아픔을
순교 성인 성녀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진·글 | 이정아 수녀(성 바오로 딸 수도회)